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태원 지역민들의 피해 경험

이상민, 김지오, 유재민, 윤보영, 최성용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1. 서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2주기가 지났다. 참사 직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진상조사의 시작은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9월 23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가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4년 10월 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에 9가지 진상규명 과제의 조사신청을 촉구했다.[1)]

유가족협의회가 제안한 진상조사 과제들의 필요성은 부연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피해자들 전반의 요구를 집약한 것이 되기는 어렵다. 아직 10.29 이태원 참사(이하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중 많은 수가 공적으로 전혀 발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2022년 12월 10일 결성된 유가족협의회가 결성되어 유가족들이 참사 피해자로서 한국사회에 등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발생 후 한 달이 더 지나서야 뒤늦게 결성되었는데, 유가족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자 정부 차원의 방해가 그 원인이었다.[2)] 하지만 유가족 이후에 부상자들을 비롯한 생존자들, 목격자들 등 다양한 층위의 피해자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다양한 피해자들이 겪어온 참사 피해의 경험이 풍부하게 드러나지 않다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여러 피해자들은 참사 당시에 처한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참사를 경험하며 해석하고 있다. 생존자라고 해도 참사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피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유가족과 생존자, 주민과 상인 등 각각의 피해자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참사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 사이의 상이한 시각이 있다는 사실은, 이태원 참사를 특정한 단일한 서사로 환원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참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요컨대,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해하려면 참사를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으며, 다소간 겹치면서 경합하기도 하는 상이한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참사의 체험과 의미화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시도할 때, 재난참사는 사람들의 경험이자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다뤄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에 주목하며 이태원 참사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은 주로 심층면접에 기반한 연구 또는 구술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러 상이한 피해자들 또는 목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드러내고자 하였다.[3)] 본 연구는 이

---

1) 유가족들이 제안한 9가지 진상규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4.10.2. https://www.minbyun.or.kr/?p=60194 (2024년 11월 2일)

2)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2023, 64-65.

러한 기존의 작업들의 연장선에서, 이태원 지역의 상인, 노동자, 주민 등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피해 경험에 주목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범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이뤄진 제도적 지원과 그 한계,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애도와 기억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태원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태원 거리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압사사고로 말미암아, 이태원 지역에서 일상의 무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참사를 직접 목격하거나 참사에 연루되었고, 참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마주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참사 이후 횡행하던 혐오와 낙인의 담론을 겪어낸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특히 이태원 및 용산 지역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의 경우 코로나 19 유행의 여파에 이어 참사로 인해 다시 한 번 생업의 큰 타격을 입은 채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피해 경험에 대해 초점을 맞춘 조사나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지역민들은 “우리보다는 유가족들이 더 슬프고 괴로울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럴수록 또 다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일부로서 지역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민들의 경험에 주목한다는 것은 참사 이후의 일상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난참사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생존한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도 크나큰 상실을 겪도록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일상은 계속된다. 정부가 응답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면 그 일상은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는 참사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참사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한동안 이태원이 “거대한 장례식장” 같았다는 지역민들의 언급이나 참사로 인해 발생한 이태원 상권의 불황과 상인, 노동자의 경제적 곤궁은 참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속되는 지역민들의 참사 피해를 암시한다. 특히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사회적 시선은 참사 이후 지역민들이 이태원 참사를 의미화하고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지역민들의 참사 피해 경험을 질문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이러한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대해 상술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그들의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애도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경험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지역민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경제적, 문화적 지원 및 보상을 검토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민들이 경험한 피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조사의 중요성과 이태원 지역의 활성화 및 회복과 연결되는 추모 및 기억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태원 지역민들의 참사 피해 경험에 주목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심층면접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재난참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경험을 해석적으로 이해하여 그 경험이 지닌 복잡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드러내는데 강점을 지닌다. 우리는 질적 연구방법이 지역민 개개인의 상이하고 다양한 참사의 경험과 그 이후의 일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2023.;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창비, 2023.;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창비, 2024.; 김혜영 외, 『이태원으로 연결합니다: 이태원 참사, 재난 시민드의 작은 일상에서 깊은 애도까지』, 플레이아데스, 2024.; 백소현·조미혜. 2023. 「10.29 이태원 참사와 애도불가능성: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문화와 사회』 31(3). 165-224.

의 문제의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 interview)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 전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작성에서 면접 질문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첫째, 참사 이전 이태원 지역과 얽힌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생애사와 참사 이전의 이태원에 대한 이해 및 장소감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둘째, 참사에 대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경험, 해석, 느낌, 감각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참사 이후 일상 및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다만 실제 심층면접 과정에서는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대화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시작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심층면접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녹취록 작성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명단

구분	이름	직업 등	거주지	세대	면접 시기	면접 장소
1	A	상인	용산구	장년	2024년 8월 10일	본인 가게
2	B	상인	성동구	청년	2024년 8월 16일	가게 인근 카페
3	C	노동자	마포구	청년	2024년 8월 20일	주거지 인근 카페
4	D	주민	용산구	청년	2024년 9월 8일	활동공간 인근 카페

연구참여자들의 모집은 연구팀의 각자의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소개를 받은 다음, 연구참여자와 연락해 심층면접 일정과 장소를 정하였고 연구참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워, 일정을 정한 후 나중에 만남이 취소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심층면접은 2024년 8월에서 9월 초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접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잡았다. 연구참여자가 일하거나 활동하는 곳 근처의 카페, 또는 연구참여자의 가게에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 연구의 내용과 무관한 정보들은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 이름의 경우에도 모두 익명처리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성은 지역 상인(A, B), 참사 당시 이태원을 일터로 출퇴근한 노동자(C), 지역 주민(D)로 이루어졌다. A의 세대는 장년층에 해당하며,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청년층에 속했다. A는 이태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온 상인이며, B는 예술가로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전시에 기획 및 참여하였고 이후 이태원에 가게를 열었다. C는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이태원에서 일을 해왔으며, D는 이태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다.

녹취 내용의 인용 시, 연구참여자의 발언에 맥락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괄호를 삽입해 인용문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괄호에는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이끌어 낸 질문이나 연구참여자의 답변의 맥락에 대한 부가 설명이 포함되었다.

2) 이태원 참사와 피해자의 범주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운동과 연구는 재난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범주를 계속 확장해왔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사회운동의 행위자로서 '피해자'로 호명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 이전까지 재난참사는 주로 안전불감증과 관료들의 부정

부패를 원인으로 하거나 우연하게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이른바 '사고-보상 프레임'에 입각해 재난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상을 제공해야 할 '사고'로 인식되었다.[4]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은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재난참사의 피해자이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행위자로 상상되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의 범주를 더욱 확장했다. 유가족을 중심으로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했던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은 참사의 또다른 피해자들인 생존자, 구조자(잠수부), 물적 피해자, 진도 어민 등을 호명하며 그들을 피해자로서 공적 공간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5]. 더불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이전까지 '사고-보상' 프레임에 가두어진 재난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한 연대로 나아갔고, 세월호 이후 발생한 여러 재난참사에 대해서도 운동의 레퍼토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범이 되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16일 결성되어 현재 9개 재난참사 피해자가 참여하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가 결성되었다. 각각 4.16 세월호 참사에 더해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7.18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결되었다.[6] 이태원 참사의 경우 아직 재난참사피해자연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및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재난참사는 애도의 위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 범주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인 애도의 가능성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어떤 피해자는 더 많은 공적 애도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피해자들은 인지의 바깥으로 주변화되어 애도의 대상으로 잘 상상되지 않는다. 이렇듯 애도의 위계에 따라 애도불가능한 잔여가 남게 된다. 다만 애도의 위계라는 문제설정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기계적으로 동등한 애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각각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로서 공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애도가능성)의 요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7]

이태원 참사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참사의 '피해자'라고 정체화한 것은 아니었다. 일견 참사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라는 자각은 참사와의 물리적 '거리'에 달려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가령 실제 참사현장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A는 연구참여자 중 참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참사 전날 이태원을 방문했으며 참사 이후에 이태원에 자리잡은 B는 연구참여자 중 참사와 가장 먼 거리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A만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정체화고 있다는 점, B의 경우 참사 전날 이태원을 방문했으며 이태원 참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맥락의 연장선에서 참사를 대면했다는 점은 참사와의 '거리'에 따라 피해의 경험 여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 그 애들도 내가 몇 살렸지만은 정말로 우리 집 앞에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A)

>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도 그렇고 이태원에 되게 자주 왔었고. 그리고 참사 전날에도 그 인파를 느꼈고. 그 시간 참사에 있었던 정확한 그 시간, 전날 그 시간에 지나가고. 하여튼 이태원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이 제가 이태원 참사 추모 전시 준비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연속선상에 있었고. (B)

하지만 참사와의 '거리'가 피해의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며 자신의 피해를 자각하는 것은 참사와의 거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당장 유가족들 중에는 참

---

4) "'비용·보상 프레임'에 유가족 진상규명 목소리 묻혀선 안 돼", 경향신문, 2022년 11월 13일.
5) 유해정, 2018, 『재난정치와 애도: 남영호,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의 마주함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77.
6)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홈페이지, https://1661-2014.org/together (2024년 10월 25일)
7)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윤조원 역), 필로소픽, 2018, 66-67.

사 이전에 이태원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참사 피해자로 호명되고 있다. A의 경우 참사 이후에도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기자들에게 시달리며 계속해서 참사와 관련해 증언을 해야 했고 참사 현장에 있는 가게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주위에(기자나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걸 시달려서 그러고서 내가 지금 정신적인 피해고 물질적 피해고 엄청나게 보고 그 자료 제공 다 하고. (참사 현장에) 경찰들 오면 다 이러고 열중셔하고 딱 저기 지키고 있어. 나는 여기(참사 발생 골목 안 가게) 있는데,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어. 나도 사진 다 있어. 이렇게 나는 감시 당하고 기자들에 시달리고. (A)

연구참여자 C와 D의 경우 참사 현장을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태원 일대 내에 있었고,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그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C와 D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자신의 경험이나 우울감을 피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C와 이태원에서 나고 자란 주민 D는 참사 소식을 접했던 순간 '충격'을 받았던 감각을 기억했다. 충격 직후에 C는 이태원에 놀러갔던 직원의 안부를, D는 이태원을 지나쳐 집으로 귀가한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뉴스를 보고 근데 우리 직원 한 명이 여기 놀러 간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막 손을 벌벌 떨면서 걔한테 전화했는데 그냥 잠에서 깬 목소리더라고요. 자기 괜찮다고 지금 전화 너무 많이 받았다고 괜찮다고. (C)

> 제 방에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엄청 원래는 안 그러는데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그래서 사실 뉴스를 안 보고 있다가 그 사이렌 소리 때문에 무슨 일 난 건가 싶어서 인터넷을 켰다가 전 그때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충격적이었죠. … 그거 보고 나서부터 되게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조금 많이 의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날 되게 조 금 많이 말 그대로 충격적이어서 뭔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내내 지금은 좀 괜찮나 하고 계속 뉴스 찾아보게 되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날 그냥 하루 종일 잠에 들기까지 새벽까지 뉴스는 계속 봤어요. 가족이 와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D)

하지만 심층면접에서 C와 D는 이태원 참사에 관해 흐릿하고 모호한 느낌을 진술했다. C와 D 모두 참사 이후 충격이나 슬픔, 무거운 기분을 겪으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뿐 스스로 열심히 관련 이슈를 찾아보거나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심층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자신이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 그때 기억 자체가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다시 한 번 곱씹어보고 하게 되는 것 자체부터가 알게 모르게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제일 컸던 건 사실 그것보다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인터뷰에) 내가 딱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충격을 받고 인상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인터뷰로서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드릴 게 제 느낌 감상 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D)

C와 D는 분향소나 참사 현장이 일터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들을 피해다니거나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참사에 대한 무관심이나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사 이후 C와 D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직면하는 걸 회피해왔으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가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1주기 때는 어땠어요?) 뭔가 잊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인스타 피드에 계속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토리에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계속 외면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세월호도 아직 소화를 다 못 했거든요. 근데 (헛웃음) 계속 너무 참사가 이어지고 이런 게 약간 뭐랄까 2014년도는 제가 고3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뭘 하지 못했다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계속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고리이기는 한데 죄책감 때문에 피하고 또 죄책감이 생겨서 피하고 약간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C)

아직도 그 골목을 제가 안 다니는데, 지금은 그때 있던 가게도 바뀌고 풍경이 일상화됐는데, 가면은 당연히 떠오르거든요. 이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안 드렸던 말인데 저도 거기 골목을 못 지나다니겠어요. 보면 그냥 생각나서요.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괜히 앞에 보고 있다가 그쯤 골목이 보일 때쯤 되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보면 또 생각 나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갈 때 되면 괜히 한번 거기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지나다닐 때도 뭔가 굳이 거기로 이용하지 않은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무의식 중에서…. 분향소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 하나 떠올랐어요. 경찰분들이 늦게까지 거기 서 계시는데 운동을 하느라 똑같은 코스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별거 아닌데 계속 마주치니까 더 불편하다.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보드를 되게 많이 타고 자주 지나다녔는데 저렇게 서 있으니까 뭔가 못 지나다니겠네. 불편하다라고 생각은 한 적 있어요. 그 외에는 딱히. (D)

C와 D가 보여주는 흐릿하고 모호한 감각은 비단 그들만의 것은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전 사회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어떤 언어나 표상이 형성되지 못한 참사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애도의 억압을 감행한 정부의 '관제 애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호 이후 구성된 재난참사에 대한 애도의 재현 형식에 잘 드러맞지 않기 때문이다.[8] 이로 인해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시민들은 참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았고, 의식 수준에서 참사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D의 경우에는 어린 동생이 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지나쳐 귀가했음에도 동생과 그에 대해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심층면접 과정에서 자각할 수 있었다.

(참사 직후 대화한 것 외에는 가족들과) 제대로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만 가끔 그래 언니 나 그때 거기 가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빼고는 딱히 그걸 주제로 얘기를 한 적 없었어요. 가족도 그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거나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D)

(동생 분은 괜찮으셨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거 보고 괜찮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나 여기 갔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너무 놀랍고 소름끼친다 그 정도? 그거에 대해서 얘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는지 되게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텐데 어렸을 때라. 집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D)

C의 경우 그 스스로 계속 참사에 대해 의식하기를 '회피'하고 주변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그렇게 회피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비겁함'과 '죄책감'을 토로했다. 참사에 연루되었다는 데서 오는 막연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자기 비난이 C로 하여금 자신의 힘겨움과 애도되지 못한 슬픔을 타인과 나누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C의 고립된 심리는 개인적 성격의 문제나 용기 없음이 아니라, 참사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일

8) 정원옥, 2023, 「애도를 위하여: 10·29 이태원 참사」, 『문화과학』 113, 43-66.; 최성용, 「풍기문란과 사회적 애도의 불/가능성 : 10·29 이태원 참사의 문화정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신진연구자 포럼 자료집, 2024.

것이다. 마찬가지로 D에게서도 외부로터의 비난을 의식하는 언어가 드러난다. “분향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 심정급”이라는 언어에는 참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미화를 허용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 (참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 그 사람이 생존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많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말을 못 꺼낸 것도 있었고요. 그거에 관해서 제 스스로 떳떳하지 않아서 말을 못 꺼낸 것도 있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거나 행동한 게 없고 내가 피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 해서 재단당하는 것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 저한테 기대하는 도덕적 가치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은 그게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보다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척 하고 있고 이렇다고 말했을 때 나에 대해 실망할까봐. (C)

> 아 이거 거의 분향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 심정급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상품권[9]을 이태원 상권 부흥을 위해서 한창…. 솔직히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 촉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난 여기 살고 있는 동네 주민으로서도 좋네 이득이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 너무…. (D)

요컨대 참사에 대한 ‘언어의 부재’는 무관심이나 침묵의 소산이 아니라 언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결과이다.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이 참사를 사회적으로 애도하며 풍부한 감정과 사연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되어야 있다. C가 겪는 죄책감과 우울감은 비록 C가 이태원 참사를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참사에 연루됨으로써 겪게 되는 피해의 일부이다. 심층면접 이후에 D의 동생이 우울감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 또한 피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와 D는 사회적으로도,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참사의 ‘피해자’로 잘 상상되지 않는다. 사회가 피해자의 범위를 상상하는 만큼 피해자는 스스로의 피해를 자각할 수 있다. 사회가 피해자의 감정과 언어를 허용하는 만큼 피해자는 말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공적인 애도가능성, 피해자가 공적으로 피해자로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회가 참사를 이해하고 상상하는 폭과 깊이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A와 C가 자신의 피해를 의미화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A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겪은 피해의 보상과 해결보다 유가족들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정체화하고 있으면서도 공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후순위의 문제로 두었다. 그는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연대하는 모습으로만 자신을 드러냈다. C의 경우에는 직접 참사를 겪지 않았고 평소처럼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제일로 피해 본 사람이 난데, 지금 유족들한테도 피해 보상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말도 못하고 있다. 내 가슴만 못질 하고 있다. … 내가 얘기를 못 한다고. 어떻게 나 이랬으니까 도와주시오. 내가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내 가. 좋은 일 해놓고 욕 먹어, 내가. 그 애들한테도 미안하다면서, 내가. (A)

>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 같은 건 안 받아보셨어요?) 그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니어서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멀쩡하게 잘자고 출근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C)

---

9) 서울시가 발행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뜻한다. 관련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자격이나 피해의 등급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자격이나 순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회가 피해자를 상상하는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피해자의 특정한 표상만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표상에 맞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적으로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애도불가능성에 처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의 박탈을 경험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을 때에야,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출현할 여지가 확보될 수 있다.

D에게 심층면접은 과정은 무던하리라 생각하며 무심코 넘어갔던 동생에 대해, 혹시 참사를 목격했던 그에게 무언가 남기지 않았을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다. C에게 심층면접 과정은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허락된 자리였고,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와 대화를 나누며 그저 피하기만 했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 보고 스스로의 언어를 찾을 계기로 작용했다. 그 끝에서 C는 '피해자'라는 언어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존중을 찾아냈다. 애도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언어를 찾기 시작한 C의 마음은 주변인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공명하듯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피해자의 범주를 확장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데 제 책임도 아니고 제가 뭘 한다고 크게 영향이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 내가 뭘 한다고 달라져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런 것도 하지 않다니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만약에 뭔가 했다고 하면 뭘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도를 공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혹시 너네도 이런 얘기하는 게 두려우면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C)

>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저요? 피해를 입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넓게 보면 그래도 피해자라 할 수 있겠네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C)

나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은 전부 '피해'의 경험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앞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으로 소비를 하는 D의 사례도 참사에 대한 무수한 경험들 중 하나이다. 비록 그것이 피해의 경험과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참사라는 거대한 사태의 일부에 속하는 작은 경험으로서 존재한다. 그러한 경험을 토로하는 것도 무리없이 허용될 수 있을 때, 그 경험이 유가족들에게 혐오발언을 하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닐까 검열하지 않고 참사의 작은 일부분으로 포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사에 대한 온전한 사회적 애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분명한 것은 피해의 폭넓은 상상과 인정이 가능한 사회는, 피해로만 환원될 수 없는 참사에 대한 폭넓은 경험까지도 포용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2024년 5월 21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이 제정되었고, 2025년 초부터 해당 법에 의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당시 참사 현장 및 그 인근에 있던 인원은 약 1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11] 참사 2주기가 지나도록 공적으로 출현한 생존자 및 목격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C의 사례에서처럼 참사 당일 현장 근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사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겪었을 피해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은 기이할 정도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

10)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다.

11) 참사 발생 시각에 가까운 밤 10시경, 참사가 일어난 골목과 그 주위에 최대 14,688명이 운집했으며, 축제가 벌어지는 일대 전체에는 34,720명이 운집해 있었다. 이 수치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이태원 1동 역대 최다 인파… 데이터로 본 이태원참사," KBS, 2022년 11월 4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다행히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피해자 범주의 크게 확장해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과연 피해자들은 공적으로 출현해 비로소 애도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법조문이 상정한 피해자의 규모에 비해 지금껏 한국사회가 상상하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범주는 무척이나 협소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그들이 피해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참사 이후 제도적 지원과 그 한계

'이태원 참사'의 경험과 기억은 참사가 발생하고 대처가 이뤄진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참사 이후 정부와 사회가 그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참사의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과 같이, 참사 이후에도 참사와 연관된 여러 경험들이 참사를 의미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이태원 지역 일대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태원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여러 제도적 지원들이었다.

우선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참사로 인한 갑작스런 지역 상권의 불황과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경험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2020년 5월 이태원의 클럽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던 만큼 이태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었다. 이후 2022년 10월 29일은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의 첫 핼러윈 축제였으니, 이태원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차례의 재난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 여기가 죄다 쳐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하게 다 죽어버렸잖아 지금. 코로나 전에 여기 사람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 (A)

그렇기에 코로나 19 유행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지역 상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2022년 11월 서울시는 이태원 1동, 2동에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연 2.0% 고정,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 지원

책을 내놓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용산구 6개 동(이태원 1·2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용산2가동)에 사용할 수 있는 400억 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했다.[12] 또한 2022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태원 1동, 2동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 원(연 1.5% 고정,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대출 지원과 최대 2억 원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전액보증 100%, 보증료 연 0.1% 고정)을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책으로 발표하였다.[13]

[표 2]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 긴급지원책

주관	지원책	내용
서울시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 이태원 1, 2동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 최대 3,000만 원 대출 지원(연 2.0% 고정,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이태원상권회복 상품권 발행	• 100억원 규모 10% 할인 → 300억 원 규모 20% 할인으로 확대
중소기업 벤처부	긴급경영 안정자금	• 이태원 1, 2동의 소상공인 대상 → 이후 6개 동에 중소기업까지 대상 확장 • 최대 7,000만 원(연 1.5% 고정,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역신용 보증재단 보증	• 이태원 1, 2동의 소상공인 대상 → 이후 6개 동에 중소기업까지 대상 확장 • 최대 2억 원의 보증(전액보증 100%, 보증료 연 0.1% 고정)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10.29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진선미 의원실은 이태원 1동, 2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업체만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중기부의 긴급지원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의 영향을 받은 상권의 범위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인접한 한남동 등의 상권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14]

이에 중기부는 2023년 1월 본격적인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용산2가동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여러 기관(중기부, 용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원책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소통창구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15] 또한 대형 클럽 등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지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다.[16]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상권이 참사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데다, 임대료가 오르거나 매출액, 영업시작일 등의 대출 지원 조건에서 탈락한 상인들의 경우 사실상 지원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실제 지원이 필요한 상인들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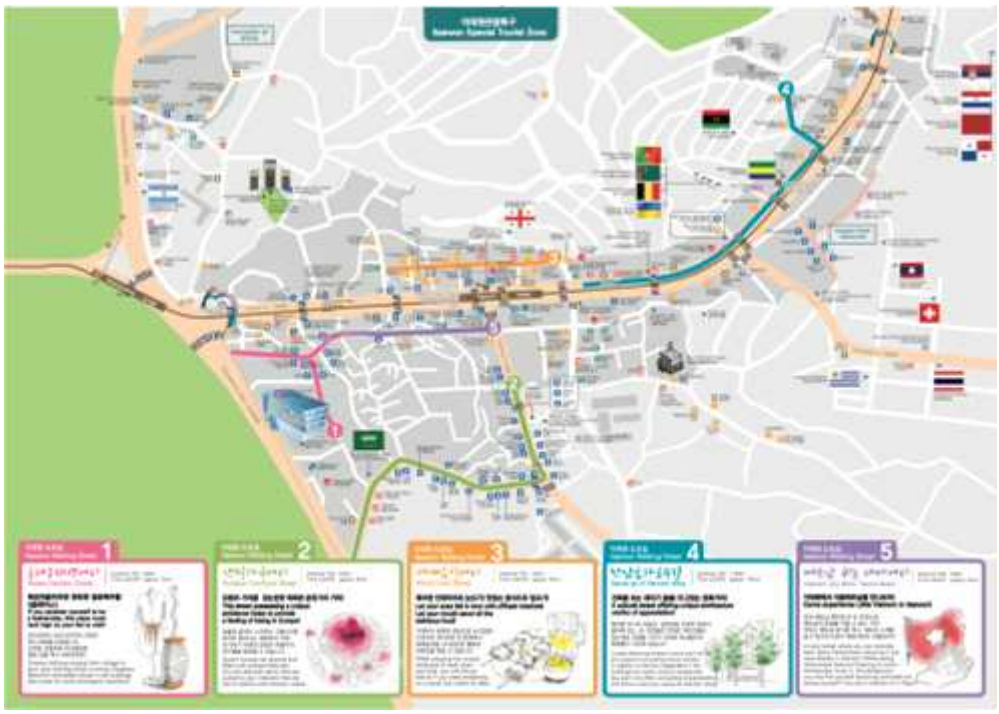
서울시가 발행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경우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온라인에 가맹점으로 표시됐지만 가맹점이 아닌 경우 또는 가맹 여부가 정확하지 않거나 점주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점주나 종업원이 결제 방법을 모르거나 상품권 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100억 원의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다 2월에 돌연 판매

12)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저리 대출…연 2.0%”, 뉴스1, 2022년 11월 24일.; “[현장] '서울시 따로 상인들 따로' 이태원상품권 400억 발행하고도 실효성 논란”, 비즈한국, 2023년 3월 17일.
13)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벤처부, 2022년 11월 28일.
14) “이태원 참사 지역에서 1,100m 떨어진 업체는 지원, 300m 거리의 업체는 안돼”, 스트레이트뉴스, 2023년 1월 10일.
15)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벤처부, 2023년 1월 16일.
16) “이태원 상인 융자·보증 대상 소상공인서 중소기업까지 확대”, 연합뉴스, 2023년 2월 3일.
17) “이태원 상인 융자·보증 대상 소상공인서 중소기업까지 확대”, 국민일보, 2023년 1월 20일.; “이태원 상인 융자·보증 대상 소상공인서 중소기업까지 확대”, 조선비즈, 2023년 5월 18일.

를 중단하였고, 이후 3월부터 300억 원 규모를 20% 할인해 다시 판매하는 '오락가락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18]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19 유행 시기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대출과 같은 임시방편적 지원책의 한계가 재차 언급되었다. 대출이 아니라 상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코로나 19 유행 시기 방역지원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 및 공과금 감면과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19]

참사 이후 몇 개월간 마치 지역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D) 같았던 이태원 지역의 상권은 참사 1주기와 2주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회복되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태원 지역 상권의 매출은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참사 직후에 비해 상당 정도 회복되었지만, 상가 공실률은 2022년 4분기 대비 2023년 1분기 약 3배, 2023년 3분기 약 2배 가량을 보여 여전히 참사의 후과가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다.[20]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023년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거리에는 오히려 사람이 평상시보다 줄어들었다. 여러 기관에서 집계하는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24년 들어 이태원 지역의 공실률이 하락하며 이태원 상권의 크게 회복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림 1] 이태원관광특구 안내지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http://www.itaewon.or.kr (2024년 11월 3일))

하지만 '공실'이라는 지표는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알려줄 수는 있어도, 상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겪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공실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폐업하고, 입주하고, 다시 폐업했는지 구체적인 피해의 실태는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을 직접 다녀보면, 이태원 2가의 경리단길이나 한남동이 아닌 참사 발생 골목을 중심으로 한 이태원 1가, 그중에서도 퀴논길과 패션거리 일대는 여전히 공실이 많은 상태다.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 뒤편의 세계음식거리

18) "[현장] '서울시 따로 상인들 따로' 이태원상품권 400억 발행하고도 실효성 논란", 비즈한국, 2023년 3월 17일.
19) "민주당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경향신문, 2023년 1월 19일.
20) ""매출 70~80% 회복" 기운차린 이태원 상권", 조선일보, 2023년 10월 30일.

일대는 여러 업체들이 폐업했음에도 다시 다른 업체들이 입주해 공실이 적은 편이지만, 이태원 역을 사이에 두고 그 맞은 편의 이태원 소방서 뒤편, 퀴논길, 패션거리 일대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다. 두 차례의 재난참사가 남기고 간 상흔은 이 지역 일대에 지금도 선명하다. 패션거리 일대에 입주한 상인 B 역시 거리마다 상권이 활성화된 정도와 제도적 지원의 격차가 있음을 지적했다.

> 뭔가 [지원 정책의] 집중이 참사 지역에만 국한됐던 것 같아요. … 실질적으로 계속 저도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향소가 여기 있었잖아요. 분향소에 (가까이) 있었던 이 지역들이 다 죽고. 말씀드렸듯이 저기도 나가고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외면됐어요. (B)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허점 또는 구멍은 심층면접을 통해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C는 이태원의 여러 가게에서 오랫동안 종업원으로 일했고, 코로나 19 유행 때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에도 이태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C는 자신이 가게 매니저로 있었기에 참사 직후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지만, 참사 직후 이태원 지역에서 입지한 가게들에서 종업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C는 코로나 19 유행 시기 이태원의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다른 종업원들이 해고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 10월 30날에는 매출이 0원이었어요. 보통 주말은 300? 잘 나오면 300 후반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날 그 다음 주 계속 하루에 한 팀 식사하고 하루에 세 팀 식사하고. 그래서 직원들끼리 안에서 우스갯소리로 오늘 일당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만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니까 사람들도 쳐지잖아요. 바쁜 것보다 저는 한가한 게 힘들더라고. 내가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잘릴 것 같고. 실제로 본사가 있는 매장인데 본사에서는 계속 인원 커트하라고 하고. (C)

> 그때도 코로나 때 애들이 대거 잘렸어요. 알바생들. 사장이 살짝 약았던 점? 근데 또 사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점일 수도 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3개월 이내에는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내인 애들을 위주로 다 잘랐어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근무하는 애들 다 자르고. (C)

그러나 종업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책은 전무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를 여러 범주로 나눌 때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피해자로 자주 호명된다. 하지만 참사 당일 야간에 점주가 자리를 비운 가게를 지킨 것은 종업원들이었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참사를 목격하고 구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참사 이후 이들은 소리소문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잘려나갔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참사 피해자의 범주로 잘 상상되지 않기에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고, 정부의 지원책에서도 배제되었다. 다행히 이태원참사특별법 제2조 제3항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중 하나로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을 명기하고 있지만, 소리 없이 사라진 이들을 추적해 그들의 피해를 확인하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인 A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서 장사를 하다 참사 이후 쫓겨나다시피 업장을 옮겨야 했다. A가 영업을 하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던 탓이다. 현재는 건물이 철거된 채 빈 공터로 남아 있다. 참사 직후 참사 현장 인근 일대의 16개 건물 중 6곳이 무단 증축, 1곳은 신고조차 안 된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21]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정부 보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철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무허가 건물은 정확히 언제 건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1981년 이전으로 추정된다.[22]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21) “'참사' 골목에 무허가 건물 있다…16곳중 7곳 '불법건축'”, 뉴시스, 2022년 11월 2일.

있지만, 활성화된 상권에서 임대료 수입을 감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버티는 게 낫다는 점에서 마땅한 제도적 개선책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복잡한 토지 소유 관계도 지자체의 개입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다. 참사가 발생한 좁은 골목은 약 48평 크기로 34명이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다.[23] 골목 옆의 무허가 건물 역시 토지 소유주가 31명에 달한다.

> 그 사고 난 바람에 무허가 건물이라 해갖고 뭐도 없지. 그렇게 헐고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일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나는 완전히 가게 거기서. 권리금 줬지, 그 인테리어 했지 뭐 하지 하고 돈 10원도 못 받고 나왔잖아. … 벌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헐어야 되거든. 그래서 헐은 거야 거기가. 땅 주인이 서른 한 명이라 집도 못 지어. (A)

임차인인 A는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이나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로 온전히 자비로 다른 곳으로 업장을 옮겼다. 그는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어떤 권리 주장도 하지 않고 빚을 진 채로 묵묵히 참고 있었다.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속에 그들의 요구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든 심리적인 측면에서든 A 역시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였고, 정부의 여러 지원책에서 그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중기부는 경제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여러 문화기획 사업 및 홍보 마케팅 등도 진행했다.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헤이, 이태원'은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태원 지역을 상업적으로 브랜딩하기 위한 팝업스토어 등 상업적 목적의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HEY, ITAEWON)', 우리가 시작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 2023년 3월 15일.)

구분	주요 내용	주관
상권 기획	◦ (가칭) '이태원 헤리티지' 추진(3월~) - 이태원 콘텐츠를 활용한 운동(캠페인), 마케팅, 기록보관(아카이빙) - 이태원을 상표(브랜드)화하고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접목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
행사	◦ 이태원상품권 특별판매(3~9월) * 300억원, 20% 할인	서울시·용산구
	◦ 이태원 예술가(아티스트) 작품전시회 및 거리공연(버스킹)(4.8~9)	인플루언서협회
	◦ 서울페스타 기간 이태원 연계 행사 진행(4.30~5.7) - 광화문에 이태원클라스, 이태원 재발견 지도 콘텐츠 제공	서울시
	◦ 이태원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진행(5월)	그립컴퍼니
	◦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판촉지원	우아한형제들
	◦ 동행축제 부대행사(소담상회 판촉전) (5월)	중소벤처기업부
홍보 마케팅	◦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이태원 상인이야기" 제작(5부작) 및 방송 * 3월(영상제작)→3월말(방송편성)→4월말(송출, OBS·SBS biz 등)	소상공인방송정보원
	◦ '헤이, 이태원(HEY, ITAEWON)' 인스타그램 운영 (공식 홍보채널)	관광특구연합회

22) "[이태원 참사] 경사진 골목에 무허가건물"…인근엔 불법증축(종합)", 연합뉴스, 2022년 11월 1일.
23) "불법과 이해관계 뒤얽힌 이태원, '돈 되는 골목'에 안전 밀려났나", 경향신문, 2022년 11월 10일.

장기적으로 이태원의 상권을 재활성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방문하도록 하는 기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태원이 품고 있는 그 지역적, 역사적 맥락이 타 지역과 구별되는 이태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콘텐츠의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그 지역적 맥락에 밀착되지 않은 팝업스토어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들은 다소 공허한 감이 있다. 상인 B는 이태원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존재이자 그 지역성을 콘테츠로 만들어내며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 주민들이 '헤이 이태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대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사업이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귀결되며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이태원) 내부에 기획을 할 수 있는 로컬 상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왜 그 모든 예산을 외부에 저희랑 관계가 없는 (단체에다 주냐는 거죠). 다른 부처라고 해도 솔직히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헤이 이태원' 이러면서 외부에다가 돈을 다 줘버리고. … 뭔가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다고는 하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좀 단편적인 것 같고. … 그냥 보여주기식이라 고 느꼈고. 그게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상인. 이게 도대체, 이 정부의 하는 일들이라는 게. 저도 관련 일을 했겠지만 했지만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에게 좀 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히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B)

이태원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주변화한 채 외부의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섭외해 상업주의적 시선으로 이태원을 재구성하는 기획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처음 가동된 것이 아니다. '로컬', '문화기획',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기획은 2010년대에 한창 이뤄진 바 있다. 이태원에 들어와 '힙'한 거리로 이태원의 경관을 재편하려는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존재 역시 해당 시기부터 존재했다. 그러한 문화기획 사업들은 이태원의 '힙함'을 떠받치는 문맥으로 작용하는 지역성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를 두고 김주희는 기지촌의 역사와 지금도 이태원을 살아가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망각을 통한 장소의 상품화"라고 비판한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러한 양상은 이태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제된 채 실행되는 일종의 '식민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24]

그러나 이태원이 진정으로 재활성화하는 기획은 이태원 참사나 기지촌의 역사에 대한 정직한 대면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024년 10월 말의 핼러윈 기간이 되자, 일부 언론들은 다시금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군중들의 몰도덕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놀다가 죽었다"며 이태원을 문란하고 몰도덕한 장소로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이태원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0월 21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의 마약류 범죄 예방·단속을 강조했던 정부의 시선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마약과 이태원을 결부짓고 있다. 이렇듯 이태원을 집요하게 부정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혐오와 낙인이 기지촌에서부터 시작된 이태원의 두터운 역사적 지층에 기인한다.

>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미군이 여기 그거 했다는 그것 때문에 편견이 (있죠) 어르신들이. 이게 이태원의 이미지에 별로 안 좋죠. 두 번째로도 이제 흑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다. 지금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냥 마약을 하는 공간.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시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미지를) 밀어버리니까. 이태원이 가지는 좋은 이미지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B)

---

24) 김주희, 2017, 「미군 기지촌에 대한 기억의 정치와 변모하는 민족주의: 다큐멘터리 <이태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4), 69.

어떤 장소가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건 좀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이 옛날에도 살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고 그거를 벗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무서운 동네라는 낙인을. 그래서 이제 좀 뜨려고 하고 (코로나 19 유행 시기) 격리 단계 해방 전에 같이 부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게이 클럽도 터지고 자꾸 계속 낙인이 그 동네에 찍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C)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이태원의 지역성을 대면하면서 그것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견 부정적인 것으로 남겨진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데서 이태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했다. 상인인 A와 B는 이태원 참사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상권을 계속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애도와 추모를 이어가는 길이 장기적으로 이태원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참사를 망각 속에 묻어버리는 대신 기억을 품은 채 상흔을 딛고 일어서려는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은, 앞으로 이태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떤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나는 거기(무허가 건물)다가 지금 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중이거든. 공원을 해달라 거기다가. 그 자리가 한 70평 되거든 거기가. 지금 허락을 다 막아놨어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 갖고. … (지금 참사 현장에) 뭐 사진 하나 찍을 것도 없고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자리에 현장에다가 그 영혼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혐오 시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공원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녹지 공간을 만들면, 카페식으로 지하 한 2 3층하고 지상 2, 3층 해 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극장을 만들어서 (참사) 현장 오면 다 가만히 들렀다 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그 죽음이 헛되지 되지 않잖아. 예를 들어 이런 사고가 났구나 그 현장을 보여줄 수 있고. 미국 테러 사건 난 뉴욕. 거기처럼 얼마나. 관광객이 가면 거기 다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태원에 혁신을 일으켜서 그날을 핼러윈 데이 날을 축제 날로 해라 이거야 나는. 어차피 귀신 쫓는 날이라고 그날 다 모이잖아 젊은 애들 이. 그러니까 그날을 오히려 그 애들한테 제사도 지내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돼, 핼러윈 데이 이태원을. 그러면 오히려 보호도 받고 예산도 받고 해서 멋있는 세계적인 볼거리가 된다고. (A)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관광 명소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뭔가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됐든 상인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쓰잖아요. 먹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상권을 살리는 힘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하면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 조그마한 (추모) 공간이라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아 여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기억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니까. (B)

뭔가 TDOV(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처럼 약간 행사와 추모가 섞인 그런 행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즐겁게만 가 져가면 그것도 너무 작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진짜 실제로 슬픈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가지는 시간도 가지고 대신에 우리 계속 이렇게 슬퍼할 거 아니고 이태원은 계속되니까 오늘 즐거운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도 또 이태원을 찾아주세요, 라는 취지의 행사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협조를 끌어내기도 쉬울 것 같고. (C)

3. 결론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이태원 지역민들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스스로를 참사의 피해자로 정체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울감을 겪으며 참

사의 피해를 겪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은 피해자라는 정체성과 거리를 두는 경우 흐릿하고 모호한 감정들을 표현하며 스스로를 드러낼 언어를 갖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설령 자신이 피해를 겪었다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서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사회가 피해자를 상상하는 범위는 피해자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공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 정도 좌우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런 피해자들이 공적으로 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법조문의 문구와는 별개로 사회가 피해자를 상상하고 허용하는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다. 이후 전개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에 있어 이들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그들의 피해를 폭넓게 조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이태원 참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도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제도적 지원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저리의 대출 지원과 상품권 판매 등 몇 가지 경제적 지원책이 시행되었지만, 지원의 범위나 자격요건, 효과에 대해 여러 한계들이 지적되었다. 근본적으로 대출 지원은 임시방편책일 수밖에 없으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통해 참사 이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이전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는 등의 경우,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태원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상업적, 문화적 지원 사업들은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통해 총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태원의 역사와 지역성이 결여된 채 기획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나 팝업스토어 등의 판촉활동은 사실상 이태원 지역의 상인과 주민들을 배제하면서 지역을 식민화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태원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이태원의 역사와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함으로써 이태원만의 차별화된 문화를 간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견 상인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역사와 사건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것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오히려 상인들은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기억과 추모가 결과적으로 이태원 상권이 살아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목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규정하는 기억공간의 마련과 기억 및 추모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와 그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다양한 위치와 모습, 그리고 이태원 지역에 대한 향후 정책 및 사업의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폭넓은 피해의 경험을 다루기 위해 '피해'를 정교하게 정의하기보다 느슨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다소간 한계를 지닌다. 또한 좀 더 자원과 역량의 한계 및 연구참여에 있어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좀 더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한계로 남았다. 다만 본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진상조사와 및 피해자들의 조사에 있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질적 연구 조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